

능장공사·안일한 대책·빗나간 예보 '한몫'

광주·전남 집중 호우 피해 왜 키웠다

나주 혁신도시 우수로 공사 지연, 축사 3개동 침수

비좁은 수로 방치...신안군 염전 3곳이 물에 잠겨

이재민 13명 발생...농경지·비닐하우스 잇단 피해

장마는 예정돼 있었지만 여전히 능장 공사와 부실한 기상 예보,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이 합쳐지면서 피해를 키웠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간당 최고 50mm가량의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농경지와 상가밀집지역·염전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다.

상승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비 피해로 장마철만 되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능장 공사' 피해 키웠다=지난

5일 밤 9시께 나주시 산포면 김포(57)씨의 닭 사육장 2동(면적 1983㎡)과 이모(61)씨의 돼지 등 축사 3동(660㎡)이 침수됐다.

침수지역은 나주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50~100m 가량 떨어진 곳. 현재 나주혁신도시에선 우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토지 보상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겪으면서 일부 구간만 우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산포면으로 향하는 우수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나주혁신도시 공사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축사 등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된 것이다.

이곳은 나주혁신도시 공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침수 피해가 없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일병원 인근 마트·노래방·식당 등 상가 7곳이 물에 잠겼다.

상인들은 이날 5kg 짜리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상가 입구에 쌓는 작업을 3시간 이상 했지만, 하수관을 역류해 유입되는 빗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지역은 현재 복개된 극락천 하수관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광주시는 지난해 3월초부터 시간당 80mm(기준 60mm) 이상 비가 쏟아져도 침수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추가로 매설중이다. 하지만, 7일 현재 공정은 고작 25%이다.

◇안일한 장마 대책=신안 염전 침수 피해 원인은 해당 지자체의 안일한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5시께 신안군 지도면 황사달(56)씨의 염전이 침수됐다. 이번 비로 지도(2곳)·임자(1곳) 등 염전 3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도의 경우 사실상 우수로 역할을 하는 폭 1.5m의 수로가 너무 비좁은데

따른것으로 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엔 광주시 북구 등촌마을 인근 농경지 1983.4㎡(600평)가 비 피해를 입었다.

이 농경지가 지난해 침수되면서 올해 우수관 공사를 진행했으나 우수관 출구를 낮가가 아닌 농경지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하면서 빗물이 유입된 것이다.

이번 비로 광주·전남에 이 이재민 13명이 발생하고 농경지(2067ha)·시설하우스(11.3ha)·주택 및 상가(10채)가 침수됐다.

◇앞 못 보는 예보= 기상청은 지난 4일 따뜻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비가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60~150mm, 곳에 따라 최고 200mm 이상일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보가 무색할 만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200mm가 훨씬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4일부터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신안 임자도 348.5mm, 화순 346.5mm, 구례 성삼재 332.5mm, 장성 324mm, 담양 317.5mm 등 300mm가 넘는 지역

도 많았다.

기상청이 신안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린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6시간 누적 강수량이 55.5mm에 달했을 때였다.

이로부터 불과 40분이 지난 오후 7시10분께 주의보는 경보로 대체됐다. 6시간 누적 강수량이 101.5mm로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비가 내릴 대로 내린 뒤에서야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하는 것은 '뒷북 예보'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집중호우나 태풍 등 특수 기상 예보에 대한 예보관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주 장마 소강=장마전선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후 3시10분을 기해 광주·전남지역 시·군에 발효한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은 이번주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3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50분 달출 06시 20분 달몰 19시 33분

소나기 조심

대부분 지역 비 그치고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4/29℃
목포	구름많음	23/27℃
여수	흐림	23/27℃
나주	구름많음	23/29℃
완도	구름많음	24/28℃
구례	비	23/29℃
강진	구름많음	24/28℃
해남	구름많음	24/28℃
장흥	구름많음	24/29℃
순천	흐림	23/28℃
영광	구름많음	23/30℃
영도	구름많음	24/28℃
전주	비	24/29℃
군산	비	23/28℃
남원	비	23/29℃
혁신도	구름많음	22/25℃

식중독지수 2.0 지진지수 1.0 뇌졸중지수 1.0

위험 매우높음 낮음

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2.0m	목포	02:26	07:4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여수	09:01	03:0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21:35	15: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날씨						
최저/최고	24/31	23/33	23/31	23/29	23/28	23/27

전기누전 화재 '망연자실' 광주 남구 승촌동 강희복씨

볼라벤 상처 아물지도 않았는데 큰 비 소식에 하우스 둘러보다 집에 불난 줄도 까맣게 몰랐죠

"작년 태풍 피해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불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광주시 남구 승촌동의 비닐하우스 농민 강희복(41)씨는 7일 시커멓게 불타버린 자신의 집을 떠올리며 망연자실해 했다. 지난해 이어 또 다시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니 야속했다.

강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자신의 70평의 집을 잃었다. 강씨가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 예보에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러 나간 사이, 아내는 품앗이를 위해 집을 비워 손 쓸 새도 없었다.

뒤늦게 돌아와 화마로 타들어가고 있는 집을 건지려 죽을 힘을 다해 불을 껐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린 두 자녀가 학원에 가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강씨는 "현관문을 열다가 안 되니까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면서 "재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장만한 살림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불타버린 태풍 볼라벤으로 비닐하우스 5동 중 3동을 고스란히 잃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2동의 구조물도 날아가 하우스 안에서 키우던 피망·호박·산약 고추 등 2000평에 지었던 작물을 버려야



화마에 뺨친 삶의터전 화재로 잔해만 남은 강희복씨 집을 찾은 부인 김수영씨와 자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했다.

당시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하던 상황에서 31사단 군인들의 지원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부인에서 키우던 피망·호박·산약 고추를 키웠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하우스

농사에 매달리며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화재라 상심은 더욱 컸다.

장마와 집중 호우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 하루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 강씨는 가족들이 머물

공간부터 찾아 나서야 할 형편이다.

승촌마을 청년회 노양근(47)회장은 "주민들이 강제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모금활동, 비닐하우스 일손 돕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5학년 의·치대 입학정원 1천여명 늘린다

지금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의·치대 학부 신입생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나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들의 대입지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의·치대 학부 정원은 2965명으로 전년(1770명)보다 67.5%(1195명)나 늘어난다. 이는 2017학년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는 대학이 2015학년도부터 학부 과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정원 증가 규모를 보면 의대가 11개교에 717명, 치대는 4개교에 182명이다. 2015학년도에 진학하는 대학도 정원이 296명 늘어난다.

2015학년도에 새로 학생을 선발하는 의대는 경북대(77명), 경성대(53명), 충남대(77명), 가톨릭대(65명), 경희대(77명), 이화여대(53명)가 늘어난다. 이는 2017학년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는 대학이 2015학년도부터 학부 과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비브리오패혈증세 사망 신안 70대 '음성' 판정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비브리오패혈증 의사(疑)환자로 신고돼 치료받던 숨진 윤모(아·77)씨에 대해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학조사반은 윤씨의 혈액 검사와 함께 어패류에 의한 직접 또는 교차 감염 등 다각적인 감염

경로 가능성을 조사했다.

전남도는 임상 증상과 환자 검사대상물 세균배양검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무릎 아래 피부병변 통증으로 목포의 한 병원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 진단을 받은 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사흘만에 숨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통인증 CE마크 인증

의료기기제조업체 GMP인증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p>광주점 (062)225-5110</p> <p>문의전화 (062)225-5110</p>	<p>부산점 (051)949-0110</p> <p>문의전화 (051)949-0110</p>	<p>대구점 (053)445-4440</p> <p>문의전화 (053)445-4440</p>	<p>서울점 (02)342-1511</p> <p>문의전화 (02)342-1511</p>
--	--	--	--